

김영록 지사 “정부 국정과제 실행력 높아자”

정책과제 분석 맞춤형 계획 주문

민선8기 비전·과제 완성도 제고

시군 균형발전·코로나 대응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새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 지역 현안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 민선8기 비전·과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집행계획 수립 등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전남 현안사업이 끝까지 실행되도록 정부 예산 반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여타

정부 정책과제도 꼼꼼히 분석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건의하자”고 말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가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시범 실시기로 한 만큼 이에 맞춰 농수산·중소벤처 등 전남형 인력대책을 마련하라”며 “법무부 제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그걸로 부족하면 더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 건의토록 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는 8월 7일 법무부장관을 면담, 외국인 인력 수급과 무안국제공항 무비자 입국 제도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또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민선8기 비전·공약위원회와 협업을 잘 해 8대 분야 100대 과제 완성을 높여달라”며 “이는 앞으로 4년간 도정의 기본이 될 과제이므로, 예산

확보와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등 후속작업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자”고 독려했다.

시군 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김 지사는 “시군단위에 100억원씩 지원하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 공모를 통해 지난 3년간 12개 시군을 선정, 핵심 동력을 지원했다”며 “남은 10개 시군에 대해서도 공모를 지양하고, 사업계획을 일괄로 받아 계획과 균형발전 척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나 도립미술관처럼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하고, 시군에서 섬이나 숲공원 등 300억 규모 이상 대형 프

젝트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시로 접수해 지원하는 방안도 지역균형 차원에서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선 “청내부터 출입자 발열체크 등 방역을 잘 하고, 출장이나 휴가 복귀, 혹은 휴무일 후 출근 시 간이검사를 하는 등 공직사회부터 체계적인 차단 노력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도내 어려운 계층에게 간이키트 등 필요한 지원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출시된 공공배달앱 ‘먹깨비’에 대해서 “민간 앱을 이용하는 것보다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이 도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크다는 점을 잘 홍보하라”며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가맹점을 빨리 늘려 소비자가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도, 방학 중 코로나 방역지도

교육청 협업 학원·PC방 점검

전남도가 도교육청과 함께 방학 중인 청소년의 코로나19 대응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호흡기 감염병의 특성상 활동력이 높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감염 기회가 높고, 청소년이 그 중심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전남도가 지난 2주간 연령별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10대가 2,913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15.7%를 차지했다. 지난 6월 이후 매주 상승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26일 코로나19 방역 대응 TF 긴급 회의를 열어 여름방학 이후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방학 중 학생과 교직원들의 방역 관리기준을 마련, 학교 관계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하반기 재유행 대비 학교 방역인력과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권옥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방학을 맞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청과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방학생활을 하도록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생달나무 향장 사업화 추진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난대수종 생달나무의 기능성 특성을 추출하는 등 천연향장을 활용한 사업화에 나선다.

생달나무는 녹나무과 상록교목으로 전남, 경남, 제주 등 남부지역 산지와 해변가에 자생하며, 건축재와 가구재, 농기구재로 사용됐다. 옛 문헌에는 생달나무 생잎의 향기가 좋아 향료로 사용하고, 차로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난대수종 천연향장 소재 발굴 연구와 산림청 지원 ‘난대수종 유래 화장품 소재 연구’를 통해 ‘생달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향산화용 조성물(출원10-2022-0057219)’ 특허를 획득했다.

연구 과정에서 생달나무 가지와 잎에 항산화와 피부 미백에 우수한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고, 향산화용 건강보조식품과 피부미백 기능성 향장 소재로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연구소는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나주에 위치한 여성청년기업 (주)섬섬(대표 주현진)에 기술 이전을 진행했다. (주)섬섬은 생달나무 천연향장 신소재를 활용한 바디케어 제품을 개발하는 등 소재와 제품화에 힘쓸 계획이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전남 비교우위 특산자원에 대한 다양한 기능성 검증 연구로 산림자원 천연 신소재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며 “도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산림 분야 연구기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광주시, 7월 광주창업포럼

오늘 광주시민회관 개최

광주시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27일 광주시민회관에서 ‘7월 광주창업포럼’을 개최한다.

‘2022년 창업지원 멤버십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스타트업과 창업에 관심있는 지역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유관기관 실무자, 투자자들이 대상이다.

광주창업포럼은 지역의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로컬 비즈니스 생태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투자유치 설명회(IR) ▲전문가 특강(소상공인의 미래) ▲네트워킹&소셜다이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로컬 비즈니스 방향을 제시할 전문가 특강은 로컬크리에이터의 멘토이자 골목길 경제학자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모종린 교수가 ‘소상공인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을 뜻하는 ‘크리에이터(Creator)’의 합성어로 지역문화, 관광 및 자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의미한다.

광주시는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광주, 창업성공률이 높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매달 새로운 창업 트렌드 변화에 맞춘 창업포럼을 개최해 지역 창업 생태계 변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손환환 광주시 기업육성과장은 “창업자 중심의 광주창업포럼이 광주지역의 창업 성공을 위한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6일 도청 접견실에서 광주은행이 출시한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기념 남도투어적금 1호에 가입 후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광주은행, ‘전남방문의 해’ 맞손

‘남도투어적금’ 출시 협약

광주은행과 전남도가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광주은행과 전남도는 26일 도청 VIP룸에서 전남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전남 방문의 해 기념, 남도투어 우대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전남도에서 제공한 45곳의 관광명소에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위치기반 인증을 받은 은행상

품 가입 고객들에게 최고 1.9%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최종금리는 18개월 기준 기준금리(2.5%)에 우대금리를 합해 4.4%가 된다. 계좌 가입 대상은 14세 이상 개인이며, 1인 1계좌로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전남도는 서울·경기지역 18곳을 포함해 광주은행 전국 150개 지점에서 상품을 판매하면 온오프라인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남도투어 우대적금 상품 1호 적금에 가입한 김영록 지사는 “광주은행은 광주·전남의 향토은행으로 시도민과 함께 발전하는 은행”이

라며 “전국 지점을 통해 전남 방문의 해를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전남·광주 대표은행의 사명감으로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적극 홍보하고, 전남 관광객 1억명 달성 전략에 대한 관광객 유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의 경영이념을 근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지역 현안에 공감하고, 지역민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양·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본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

제11일은 인구의 날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회 | 광주전남지회
가 함께 합니다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림 박배성 302-0316-649511